

안타까운 기초과학의 푸대접

새내기 과학기자의 녀두리

‘과학기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인간유전자 지도가 어떻게’ 하며 아는 척(?) 과학기사를 쓴 지 이제 2개월을 갓 넘긴 새내기 과학기자다. 중고등학교 시절 유독 물리선생님을 좋아해서 시험 때마다 다른 과목은 제쳐두고 물리공부만 죽도록 매달렸던 기억을 제외한다면 대학시절 문과생이었던 나는 과학과는 도무지 인연이 없던 사람이다. 그래서 과학기자라는 명칭은 아직도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듯 어색하기 짝이 없다.

그래서 원고청탁을 받고 난 후 이 궁리 저 궁리하다가 쉬운 길을 택하기로 마음을 고쳐먹었다. 전문가 입네하고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어떻게 하며 어차피 들통날 엉터리 지식을 늘어놓는 것 보다는 과학기사를 시작하면서 가졌던 개인적인 느낌들을 소상히 전달하기로 말이다.

과학기술부를 첫 출입하던 날, 나의 초심은 설렘과 기대감으로 잔뜩 부풀었다. 매일 이 사건 저 사건을 쫓아다니며 하루살이 기자생활을 하던 나에게 드디어 명색이 전문기자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고 첨단지식에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또 어릴 적에 책에서나 보던 에디슨 아저씨를 실제로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도 한 몫 했다.

그리고 2개월이 흐르면서 적지않은 수의 과학자들을 만났고 이제 나는 한번쯤 과학자를 꿈꿔왔던 구경꾼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과학계와 한 배를 탄, 그래서 칭찬과 꾸지람도 함께 들어야하는 주체

임을 뼈저리게 자각했다.

방관자가 아닌 주인된 자격으로 바라본 과학기술계의 현실은 더욱 안타까웠다. 연구사업 선정을 둘러싼 불공정 시비, 정치권에서나 떠돌이처럼 ‘줄서기’라는 말이 버젓이 통용되는 과학계의 파벌 다툼, 연구에 혼신을 다하는 과학도의 양심을 기대할 수 없는 현실 등등....., 또 하나의 정치판이 벌어지고 있었다. 얼마 전 취재차 만났던 노(老) 수학자와의 일화가 떠오른다.

어느 노수학자의 푸념

‘물 건너 미국에서는 인간의 유전자지도 완성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오는 판에 고리타분한 수학자야 그걸도 70대 고령의 교수님이라니.....’

시큰둥한 마음으로 데스크의 지시에 따른다는 의무감만 가지고 취재원을 만나러 갔다. 머리가 히끗한 노교수가 말쑥하게 양복을 차려입고 깍듯하게 맞이주시는 바람에 순간 당혹스러웠다. 한 평생 수학자로서의 외길만 고집해온 학자의 품모가 물씬 풍겨났다.

한참 뜬금없이 노교수는 “아무리 시대가 생명공학, 첨단공학시대로 접어들고 있지만 모든 컴퓨터의 기본은 수학입니다. 첨단과학이 집이라면 터를 닦고 골격을 쌓는데 들어가는 정성은 수학의 몫이죠”라며 기초과학의 숨겨진 현실에 대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얘기를 다 듣고 난 뒤 실로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

과학기자 2개월, 짧은 기간이었지만 내가 돌아본 과학기술계의 현실은 안타까웠다.
 연구사업 선정을 둘러싼 불공정 시비, ‘줄서기’ 라는 말이 통용되는 파벌 다툼,
 연구에 혼신을 다하는 과학도의 양심을 기대할 수 없는 현실 등 ...
 얼마 전 만났던 칠순의 수학자는 “국제올림피아드에서 쾌거를 이룬 인재를
 한창 연구할 시기에 군대를 보낸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말하면서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와 인재 양성이 외면당하는 현실을 털어놓았다.

와 인재 양성이 외면당하는 현실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정부투자는 둘째치고라도 기초과학 분야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당위성마저 외면당하는 현실에서 노교수가 현실을 무시하고 제자들에게 묵묵히 연구에만 몰두하라고 요구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다.

인재 양성 외면당해서야

노교수님의 사연은 이러했다.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서 금상과 동상을 통틀어 두번씩이나 수상한 가까운 수학 인재가 곧 군 입대를 해야된다는 것이었다. 유명 야구선수도 그렇고 요즘 웬만한 음악 콩쿠르에서 입상해도 군 입대를 면제받는 마당에 국제올림피아드에서 쾌거를 이룬 인재를 한창 연구할 시기에 군대에 보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었다. 연유를 들어보니 수학올림피아드는 일반인들의 관심이 저조해 여론조성이 안된데다 정부에 이같은 건의를 하면 다른 과학계에서 그러면 우리는 왜 안되냐며 문제제기를 해와서 번번이 무산됐다는 것이다.

과학계의 전체 발전을 위해서는 과학자의 양심이라면 우리편을 찾기 전에 가까운 과학인재가 훌륭한 수학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한 목소리를 내야하는 건 아닐까. 첨단공학 운운하며 안일한 태도로 취재에 임했던 스스로를 반성하는 계기가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

에 기대와 희망을 걸어본다. 주변에는 묵묵히 자신의 연구에 매달려 정진하는 숨은 인재들이 더 많기 때문이다. 또 기사 한 꼭지를 쓰더라도 진심으로 과학기술계의 발전을 걱정하는 선배 기자님들의 충정어린 마음을 믿고 싶다. 더군다나 생명공학 열풍을 타고 일반인들의 관심이 커져가고 있는 요즘은 과학의 저변확대가 가능한 시기다.

얼마 전 대전 대덕연구단지에서 열렸던 ‘바이오벤처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이같은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과학기자클럽 주관으로 최대의 이슈로 등장한 생명공학 분야에 대한 진지한 토론의 장을 만들어보자는 의도로 개최된 세미나에는 젊은 공학도에서부터 아기를 업고 방청온 아주머니에 이르기까지 그 열기와 성원은 대단했다.

과학계의 한 식구로 동참하며 쫓는 정성과 고민들이 모여서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발전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또 10여년 뒤에도 과학기자의 길을 걷고 있다면 그 때는 자신있게 희망만을 말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 ㉞



朴 宣 映
 <세계일보 경제부 기자>